인천주보

제2618호
2020년 5월 24일 |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모님의 밤〉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

복음 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교구장 사목교서 이 주의 성경쓰기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요 일	24 (주일)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성경 / 장	사도 12,6-12,25	13,1-13,25	13,26-13,52	14,1-14,20	14,21-15,21	15,22-15,41	16,1-16,15
확 인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 제7주, 부활 마지막 주일이면서 홍보 주일이기도 한 오늘, 주님 승천의 의미를 새겨봅시다. 제1독서인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사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구름에 싸여 보이지 않게 된 그 모습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사건인 승천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승천은 다만 예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말이 있지요. 예수 승천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늘만 쳐다본다면 마치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격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분이 이제 우리 곁을 아주 영영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종말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종말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참조) 우리는 승천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인 의미와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는 당신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 사건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천이라는 외적 사건에 집착하여 예수께서는 승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으며, 그 이후는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지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사도 1,8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승천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며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2독서인 에페소서 1장 20-22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증거 하듯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셨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정지원 마르코 신부
내가 본당 주임

이주의 암송구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5)

하느님 구원의 드라마 – 이사야 예언서

이사야(יְשַׁעְיָהוּ)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치유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사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열두 소예언서를 모두 합하면 67장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방대한 분량만큼 이사야서는 내용도, 주제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 이름입니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의 드라마, 하느님의 심판과 경고, 야훼 하느님의 왕권 등 방대한 분량에 따른 다양한 주제들이 예언서 안에서 부각됩니다.

예언서를 보는 기준으로 바빌론 유배시기를 기준으로 전·중·후로 분류할 수 있음을 언급해드렸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사야서는 이 세 시기를 모두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서는 유배를 중심으로 제1부(유배 전), 제2부(유배 시기), 제3부(유배 이후)로 나뉩니다.

제1부는 1-39장까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외부의 침입 세력들도 하느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니,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2부는 40-55장입니다. 2부는 유배가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유배 중에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유배의 마지막 시기에, 이사야서 40-55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선포가 이뤄집니다.

제3부는 56-66장입니다. 유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게 될 것이 예고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신앙인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짐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사야 예언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또 친숙하게 만나는 이유는 신약과의 직접적인 연결성 때문입니다. 대림시기가 되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탄생 예고를 듣습니다. 그 예고가 선포되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이사 7,1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임마누엘'은 마태오 복음 사가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마태 1,23). 아울러,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주님의 수난을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이사 42,1-9; 49,1-7; 50,4-11; 52,13-53,12)'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신약의 관계는 신약에서 인용된 부분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시편을 제외하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니모 성인은 이사야를 지칭할 때, '그는 사도요, 복음사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의 해를 맞이하여 연재된 구약의 이야기는 이사야 예언서로 마무리됩니다. 구약(舊約). 말 그대로 옛 계약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계약을 중심으로 펼쳐진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구원의 드라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신약(新約)에서 그 드라마는 절정에 이릅니다. 구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씀이 육화(肉化)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발도, 복음 선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이사 52,7)

박형순 바오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동안 인천주보에 연재해주신 박형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엄마 성모님께

성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공항 성당 학생인 배예은 가타리나 라고 합니다.

성모님! 저는 성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봉헌' 이라는 단어에요. 제가 감히 성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주 살짝만 하자면 저는 아기 때 '엄마', '맘마' 라는 말보다 어쩜 봉헌! 이란 말을 먼저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 후에 7년 만에 생겨 낳은 아이인데요. 결혼 후 아이가 쉽게 안 생긴 울 엄마는 구약성경 '한나' 처럼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꼭 봉헌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도 제가 태어나기 전 부터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드디어 때가 되자 제가 생겨 태어났고 '예수님의 은총' 이란 뜻으로 예은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엄마의 몸조리 이후 저는 아주 신생아 아기 때부터 주일미사는 기본이고 평일미사도 새벽미사도 따라다녀야 했고, 저는 엄마 등에 업히고, 엄마 가슴에 안기어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도 최연소 나이에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제 첫 생일인 돌잡이에서 그만 '묵주'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일까요? 묵주기도와 어린이 봉헌기도를 하며 33일 봉헌식 때 저는 우리교구 최연소 봉헌자도 되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교황님을 뵈러 이른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혹시라도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엄마손 꼭 잡고 광화문으로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아저씨 한분이 제 목에 걸린 출입증을 보면서 이러셨어요. "꼬마야 넌 참 좋겠다! 교황님 뵈러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데 너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아저씨께 저도 모르게 그만 "어휴 제가 좋아서 가나요?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라고 제 속마음을 그만 뱉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성모님!

워낙 아기 때부터 그랬으니깐 그런가보다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은 남다른 이런 신앙생활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사춘기 친구들이 가득 있는 학교생활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는 조금 남다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학을 올 때는 다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다는 소문도 들렸고 그래서인지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다' 라는 건 저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친구들과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서툴렀을 뿐이지 다른 큰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성모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친구를 따돌리거나 무관심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우리 반 친구가 되고 나서도 저의 평상시와 같이 자연스러운 학교생활은 신앙심이 준 큰 은총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저는 오늘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어요. 가끔씩 제게 '성당은 마리아 믿는데 아니냐'고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점점 사춘기에 접어드니, 괜히 울적할 때도 있고,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비뚤어질 때도 있고, '성당이냐? 학원이냐?'여러 생각이 많아질 때도……. 이런 저와 제 친구들이 겪는 이런 상황들을 어머니께 전부 봉헌합니다.

부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주셔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전부 행복하고 밝게, 건전하게 이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생아 때 제가 우리 엄마 등에 업히고 가슴에 안긴 것처럼, 광화문 거리에 엄마 손을 꼭 잡고 갔던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늘 언제나, 저를 업어주시고 안아 주시고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모님 그럼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모님의 소중한 딸 올림

배예은 가타리나 · 신공항 본당 (중2)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부터 여러 대륙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찍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 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부활절 전례 거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아무런 제어 없이 질주해 온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삼림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이 인간 세계와 먼 거리에 있던 바이러스들을 숲 밖으로 불러냈고, 인간세계의 고속화된 교통과 유통망은 이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각국의 국경 폐쇄와 물류 차단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지금 전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황을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고 경고하는 더 큰 재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빚어질 재난은 자연계 전체에 더욱 엄청난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들의 창궐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생태계 곳곳에 심각한 재난의 표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2018년)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 아래로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1℃ 상승하였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는 상승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국제 연합(UN) 보고서는 1.5°C 상승만으로도 심각한 물 부족, 폭염, 경작지 감소, 식량 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이어서 인류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무책임하게 모든 피조물을 남용하고, 혹사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오염과 질병과 기후 위기에 봉착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지구는 우리가 만들어 낸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우리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과 자연을 거슬러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구 생태계 위기에는 사회적 사랑으로 대처합시다. 검약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활 양식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2. 선의의 모든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3.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와 담당자들에게 호소합니다.
(1)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도시가 기후 위기 비상 사태 선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 사태를 선포하십시오.
(2)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정의에 입각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농·축산업의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십시오.
(3) 기후 위기에 맞설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회의 선한 이웃들이 마치 '노아'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인다면(「찬미받으소서」, 71항 참조), 세계는 헛된 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고 지구촌의 파국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5월 8일
회칙 「찬미받으소서」 5주년을 맞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단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 예수님 찬미!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교육 주간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평화를 촉진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한 거요." "전쟁이 없는 거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가 좀 더 조용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며, 폭력적인 말과 행동, 이기주의와 무관심, 경쟁심, 비민주적 관계가 지배적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평화는 인간관계가 지위와 서열, 돈과 힘에 따라 지배될 때 쉽게 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평화의 촉진자'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평화를 촉진하는 일은 그저 시끄럽지 않거나 다툼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멈추지 않으며, 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툼을 해소시키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적극적 평화'를 조성하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평화를 "사람들의 선익(善益)을 보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는 형제애(兄弟愛)의 끊임없는 실천"(2304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육자와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담당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자애와 존중이 담긴 대화에서 시작되며 온유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전쟁의 상처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하기]
1.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합시다.
2. 학교에서 평화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행사를 시행합시다.
3. 가정, 학급, 학교 차원에서 평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소
   (예: 전쟁 기념관, 독립 기념관, DMZ[비무장 지대], 평화 누리길 등)를 방문합시다.
4. 가정과 학교, 사회와 세계가 더 큰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2020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교육 | 피정

◈ 인천ME 425차 주말
때: 5/29(금)~31(주일)
곳: 50주년기념 영성센터(강화)

◈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우)04535
☎ 02-2274-1843, 4
홈페이지:cdcc.co.kr

◈ 서울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 기도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때: 5/29(금)~9/25 14:00~16:00
야간 19:00~21:00(청년 5/28(목)~9/24)
곳: 명동 가톨릭회관 205호
야간-청년 318-2호
☎ 접수 010-9620-4820, 02-774-0448

◈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6/13~14, 6/20~28 파주
이냐시오피정: 6/26~28 파주
에니어그램: 6/12~14 파주
영적거장에게 배우다: 6/15~7/20 서울
☎ 성심수녀회 010-9099-2337

◈ 노틀담 실천교리 일일연수
이미지와 활동을 통한 성경과 교리교육
때: 6/8(월), 21(주일) 10:00~16:30
곳: 서울 종로구 북촌로 노틀담 교육관
대상: 교리교사, 예비자 및 견진교리 담당자
☎ 010-8829-6292 / www.ndrpp.or.kr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피정: 6/4(목)~7(주일) 28만원
성경완독피정: 6/26(금)~7/4(토) 48만원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010-3340-0201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6/19~21, 7/3~5, 7/27~29, 7/31~8/2
☎ 064-796-9181

◈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6/26(금)~28(주일) [2박 3일]
곳: 스승 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접수: 6/18까지
☎ 한국CLC 02-333-9898 (월~금)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 2: 6/16~7, 7/4~5
3박 4: 6/11~14, 7/9~12
8박 9: 6/24~7/2, 8/5~13
40일: 6/16~7/25, 10/6~11/14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 몸 신학1
매주(월) 10:00~12:00 김혜숙 선교사
·코로나 사태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참여
매주(화) 10:00~12:00 김미정 수녀
·만물의 시작, 믿음의 시작? 창세 ,탈출, 레위, 민수
매주(화) 19:30~21:00 주원준 박사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미사 | 행사

◈ 민족화해위원회 분과장·차장 모임
때·곳: 6/1(화) 19:00 부평2동 성당

◈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저자 강연회
내 삶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든 분 초대
강사: 홍성민 신부(부산교구)
때: 6/17(수) 19:00
곳: 교구청 복자 이안나 홀
☎ 바오로딸 032-761-5830,
복음화사목국 032-765-6962

모집 | 일반

◈ 범박 성당 성십자가 성가대 지휘자 모집
연습: (목) 20:00, (주일) 9:00
☎ 단장 010-9066-3637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조리직) 모집
분야: 사제관 주방 직원 1명(정규직)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마감: 6/10(수) 14:00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국내입양상담 및 아동을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 다솜터 심리상담소
공황장애,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가족, 부부, 영성 상담
소장: 이찬 신부 / www.dstcoun.net
(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 010-9295-5912

◈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6월 개강)
임성미 선생님의 〈부모독서교육〉
가정독서, 인문독서, 진로독서 매주(수)
☎ 02-844-0388(7호선 신풍역)

◈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0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 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 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일반 및 편입학 2차 전형: 6/1(월)~11(목)
전형일: 6/27(토) http://gsot.sogang.ac.kr
☎ 02-705-8668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모집기간: 5/25(월)~6/9(화)
면접: 6/12(금) 19:00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02-2258-7723
dpt6010@catholic.ac.kr
https://w elfare.catholic.ac.kr/

순례 | 기타

◈ 국내성지순례
때·곳: 6/10 춘천교구 사당역
1번 출구 50m 공영주차장 출발
회비: 3만 5천원 (조, 중식 제공)
☎ 김천래 바오로 010-9200-3532

◈ 제주성지순례 3일
때: 6/16~18, 7/28~30, 8/7~9
곳: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지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바오로수도회)
☎ 064-805-9890

◈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7/9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12일] 510만원
8/17 성모님 발현성지 [13일] 390만원
9/14 매혹의 땅. 코카서스 [12일] 390만원
10/7 스페인, 프랑스, 포루투갈 [14일] 390만원
☎ 02-722-8366

성소모임

◈ 예수고난회 (남자)
때: 6/12~14
곳: 청주 예수고난 봉쇄수녀원
☎ 010-6804-4904